

소프트 웨어 수명

문 장 모

(구상정보기술(주) 대표이사)

정보시스템 관련용역을 수행하다 보면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달리하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며 그릇된 인식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을 처음 도입하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키로 계약 체결한 후 인사차 방문하였다가 나눈 이야기이다.

차를 한잔 마시며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바 정보시스템은 아편과 같아서 일단 도입하면 도중에 중단할 수가 없다. 하드웨어는 날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니 몇 년 사용하다 교체할 생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수명이 없어 오랜 고심 끝에 거금을 들여 귀사에 의뢰하였으니 마르고 달토록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개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난감해진 나는 “사장님, 솔직히 말해 소프트웨어에도 수

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적절한 유지보수와 용량확장을 통해 5년 또는 그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경우에 따라 하드웨어보다 수명이 짧으며 어느정도 사용한 후에는 폐기하고 재구축 하여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몹시 놀라 당황해하는 사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이해시키기에 적지 않은 진땀을 흘려야 했다.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은 범용소프트웨어 패키지 도입과 다르며 마치 맞춤옷을 만드는 것과 같아 현재 귀사의 사업규모, 관리체계, 전산활용능력등을 감안하여 향후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게 만들어 드리게 된다. 그간의 회사 성장 발전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번 만들어 드리는 옷은 앞으로 5년정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로는 다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 5살된 아동에 맞는 옷을 만들면 몇살더 먹도록 입을수는 있지만 20세 청년이 되도록 입을수는 없는 이치와 같다. 물론 회사가 성장 발전하지 못하거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수명은 10년 아니 20년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가 성년의 옷을 입을 수 없듯이 기능이 우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하여 드린다. 하더라도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수용 태세가 미비된 귀사로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한번 구축하여 사용중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규모의 팽창, 시스템 활용능력의 향상,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정보기술의 발전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이상에서 간단히 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하여 언급했지만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직의 문화, 체질 개선을 요구받거나 CLIENT/SERVER, DATA WARE-HOUSING, INTRANET, 객체지향 기술등 최신 정보기술의 무조건적인 고집 때문에 겪게되는 고초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속히 올바른 정보사회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